

도덕적 이탈 및 도덕적 정서가 또래괴롭힘에 대한 가해동조행동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s of Moral Disengagement and Moral Emotions on
Bullying Assistant Behavior*

서미정(Mijung Seo)¹⁾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hich regards bullying as a group process was to examine the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s of moral disengagement, empathy, and guilt on bullying assistant behavior. The participants consisted of 442 6th graders from an elementary school(male : 227, female : 215).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moral disengagement, empathy, guilt, and bullying assistant behavior. Second, moral disengagement have not only direct influences but also indirect influences through empathy and guilt on bullying assistant behavior. Moral disengagement was the strongest predictor of bullying assistant behavior. Finally, the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intervention in bullying were also discussed.

Keywords : 가해동조행동(bullying assistant behavior), 도덕적 이탈(moral disengagement), 도덕적 정서(moral emotions), 공감(empathy), 죄책감(guilt).

* 본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5B5A07037850].

¹⁾ 부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시간강사

Corresponding Author : Mijung Seo,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30 Jangjeon-Dong, Geumjeong-Gu, Busan 609-735, Korea
E-mail : bella2001@pnu.k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교에서 또래간 폭력은 전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발생하는 보편적 현상이며, 특히 국외에서 bullying이라고 불리어지는 또래괴롭힘은 학교폭력의 가장 만연한 형태 가운데 하나이다. 국내에서는 또래괴롭힘이 집단괴롭힘, 집단따돌림, 왕따 등과 혼용되고 있는데, 엄밀히 적용하면 각 용어는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가진다. 다만 이들 용어 모두 상대적으로 힘의 우위에 있는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학생이 더 약한 학생에게 신체, 언어 및 심리적 형태의 고통을 고의적으로 주는 행위가 반복된다는 점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Olweus, 1984, 1993; Smith, 1991). 하지만 이러한 정의는 또래괴롭힘이 가해아와 피해아 간 갈등이라는 개인적 현상으로 간주될 때 더욱 적합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래괴롭힘 연구의 초반에는 가해아 및 피해아의 개인적, 환경적 특성들을 밝히고(Karatzias, Power, & Swanson, 2002; Seo & Kim, 2004; Umnever, 2005), 또래괴롭힘 중재 또한 가해아나 피해아 중심에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었다(Smith, Morita, Junger-Tas, Olweus, Catalano, & Slee, 1999; Song & Kim, 2001). 게다가 피해학생의 심리적 고통과 자살 위험이 사회적 이슈로 언론에 부각되면서(SEGYE.com, 2013), 사회적 관심도 가해아와 피해아에게 집중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의 또래괴롭힘 연구는 사회적 맥락을 강조하여 가해아와 피해아뿐 아니라 이들 주변에 있는 또래들까지 포함시켜 보다 확장된 접근을 사용하는데 더욱 치중하고 있

다. 이러한 관점으로 또래괴롭힘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또래괴롭힘을 지속시키는 기제를 밝히는 데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는 주어진 행동의 수행 후 긍정적 결과로서 보상이 주어지면 그 행동은 강화되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강화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Skinner, 1953). 즉 또래괴롭힘을 집단과정으로 접근한 연구자들은 가해아와 피해아로부터 비롯되는 또래괴롭힘이 유지되는 데에는 또래들의 반응에 따라 가해행동이 강화받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또래괴롭힘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가해아를 동조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아를 지지하지도 않는 방관자적 행동은 암묵적 승인에 의해 가해행동을 강화하는 역할로 간주되며(Craig & Pepler, 1998; Rigby & Slee, 1993), 피해아를 도와주고 지지하는 또래가 없으면 가해아는 보복의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 가해행동을 더욱 지속하기 쉬울 것이다. 또래괴롭힘의 맥락에는 방관자와 피해아 방어자 외에도 가해행동에 동참하거나 지지하는 또래들도 존재하는데, 이들은 가해아에게 심리사회적 보상이 되어 가해행동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Cha, 2005; Salmivalli, Lagerspetz, Björkqvist, Österman, & Kaukiainen, 1996; Salmivalli & Voeten, 2004; Seo, 2006; Tapper & Boulton, 2005).

또래괴롭힘 참여자 역할의 안정성을 조사한 Sim(2005)은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에서 강화자와 조력자 역할을 한 아동들이 1년 후 가해아 역할에 가장 많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게다가 학급 내 다수의 구성원들이 가해행동을 지지하면 나머지 구성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가해행동에 개입하게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ang, 2007). 이러한 경험적 연구들

은 가해 동조자 역할을 하는 아동들이 시간 흐름에 따라 주도적 가해아로 전환되기 쉬우며 집단 내 가해동조행동이 나머지 구성원들의 가해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또래괴롭힘을 예방할 뿐 아니라 지속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가해 동조자의 적극적 강화를 약화시키는 전략이 포함될 때 보다 효율적일 수 있음을 인식하여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또래들이 나타내는 반응 가운데 가해동조행동과 관련되는 변인 탐색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먼저 또래괴롭힘을 목격하는 또래들이 가해아의 행동을 지지하는 것은 타인을 희생시키는 것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의 부족에 기인할 수 있다. 사회인지이론(Bandura, 1991)에서는 도덕행동이 내적인 자기규제기계에 의해 통제되는데, 자기규제기계의 기본 과정인 도덕적 인지가 왜곡되면 도덕적 이탈이 초래되어 행동의 통제가 방해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도덕적 이탈은 해로운 행동으로부터 도덕적 자기제제가 이탈되는 것을 말하는데, Bandura, Barbaranelli, Caprara와 Pastorelli (1996)는 크게 4가지의 자기규제기제로 도덕적 이탈을 설명하고 있다. 즉 첫째는 유해한 행동 그 자체에 대한 해석과 관련되고, 그 다음으로 해로운 행동과 결과 간의 관계를 모호하게 하는 것과 행동의 해로운 결과를 왜곡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피해아를 비인간화하거나 잘못된 행동에 대해 피해아를 비난함으로써 이탈될 수 있다. 이러한 도덕적 이탈은 주로 반사회적 행동이나 또래괴롭힘의 가해행동과 연결시키는 연구들에서 주목받아왔다(Bandura et al., 1996; Menesini, Sanchez, Fonzi, Ortega, Costabile, & Feudo, 2003). 하지만 도덕적 이탈이 또래괴롭힘에 대한 가해동조행동

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는 도덕적 인지 요인임을 검증한 연구자들은 방관자나 피해아 방어자에 비해 가해 동조자의 도덕적 이탈 수준이 더 높고(Baik, 2010; Gini, 2006; Seo, 2006), 도덕적 이탈은 외현적 및 관계적 형태의 가해동조행동 모두와 정적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Bae, 2012).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가해행동에 동참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에 대해 정당화하거나 행동의 해로운 결과를 모호하게 하거나 피해아에게 비난을 돌리는 등의 인지적 왜곡에 기인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래괴롭힘에 대한 가해동조행동을 이끄는 데는 도덕적 정서의 역할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도덕적 정서는 인간 행위의 가장 강력한 동기 유발자로 논의되어 왔으며(Hoffman, 1983), 죄책감, 수치심, 공감 등은 도덕성에서 기본적 역할을 하는 도덕적 정서로 알려져 있다(Kim, 2002). 먼저 가해동조행동과 관련되는 도덕적 정서 가운데 하나로 공감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감은 다른 사람의 정서적 상태를 공유하는 것으로 정의된다(Eisenberg & Strayer, 1987). 하지만 최근의 접근들은 공감을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Davis, 1994; Hoffman, 2001). 즉 공감의 인지적 요소는 다른 사람의 조망을 이해하고 동일시하는 능력을 반영하는 반면에, 정서적 요소는 다른 사람에 대한 동정이나 관심의 감정을 경험하는 경향에 의해 특징지어진다(Davis, 1994). 이러한 공감의 인지적 요소(Kaukiainen, Björkqvist, Lagerspetz, Österman, Salmivalli, Rothberg, & Ahlbom, 1999)와 정서적 요소(Albiero & Lo Coco, 2001; Mehrabian, 1997)는 서로 다른 조절 기제가 작용한다해도 두 요소 모두 공격

행동과 폭력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와 같이 공감과 공격행동과의 부적 관련성이 일관되게 보고되었을 뿐 아니라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가해동조행동에 대한 공감의 영향을 탐색한 연구들도 있다. 예를 들면, 또래괴롭힘 참여자 역할 간 공감 수준을 비교하면서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Seo(2006)와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Maeda(2003)는 가해 동조자의 공감 수준은 피해아 방어자에 비해 낮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남학생에게만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Gini, Albiero, Benelli와 Altoè(2007)의 연구에서는 공감의 인지적, 정서적 요소를 모두 반영한 공감적 반응성과 또래괴롭힘에서 가해행동이나 가해동조행동과 같은 친-가해행동(pro-bullying) 간에 부적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공감능력의 부족이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가해행동에 동참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Sutton, Smith와 Swettenham(1999)의 “숙련된 조종자(skilled manipulator)” 관점에 따르면 또래괴롭힘 가해아들은 사회적으로 유능하며 숙련된 인지 기술을 가지고 있어 가해아들이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는 데는 능숙하지만 타인의 감정을 공유하지는 못한다. 즉 가해아들은 인지적 측면보다는 정서적 측면에서의 공감 수준이 낮기 때문에 가해행동에 더욱 연루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해행동을 강화하는 역할의 가해동조행동과 관련되는 공감의 요소는 피해아의 고통을 함께 경험하는 정서적 측면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 이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질적인 도덕적 정서로 알려진 죄책감은 수치심과 함께 도덕적 과실과 오류에 직면하여 자

기와 관련된 판단을 평가하고 수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기 평가적 정서라 할 수 있다(Eisenberg, 2000). 특히 나쁜 행동에 대한 긴장, 양심의 가책, 후회의 감정과 관련된 정서인 죄책감은 부정적 평가의 대상이 자기가 아니라 행위에 초점을 둔 것으로(Menesini et al., 2003), 공격성, 도덕행동 및 일탈행동 등과의 관련성이 연구되었다. 즉 죄책감 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낮은 청소년에 비해 공격행동, 규칙 위반 및 도덕적 금지행동을 더 적게 하는 반면(Ha, 2001; Han, 2007), 친사회적 행동은 더욱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Tangney, 1995). 또한 Song(2010)의 연구에서 죄책감은 가해행동과 피해아 방어행동에 각각 부적 및 정적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죄책감과 또래괴롭힘과의 관련성을 살핀 연구들은 가해행동 및 방어행동에 주된 초점을 두고 있으나, 죄책감은 가해행동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가해동조행동을 억제시키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한편 도덕적 인지와 도덕적 정서 간의 상호 영향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관적인 데 반해, 연구자마다 도덕적 인지가 도덕적 정서에 선행한다는 입장과 그 반대 입장의 견해를 가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가해동조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도덕적 인지로서 도덕적 이탈과 도덕적 정서인 공감 및 죄책감 간의 관련성을 유추할 수 있다. 중학교 남학생만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도덕적 이탈과 죄책감의 부적 상관(Song, 2010)과 초등학교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도덕적 이탈이 높을수록 죄책감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검증된 Bandura 외(1996)의 연구결과를 통해 사람들은 비인간적 행동을 가치있는 목적을 부여하는 것으로 재해석하게 될 경우 죄책감으

로 인한 고통에서 보다 자유로울 것으로 여겨진다. 도덕적 이탈과 공감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경험적 연구결과(Song, 2010)는 중학교 남녀학생 모두 도덕적 이탈과 공감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을 보여주지 못했으나, 본 연구는 도덕적 이탈이 죄책감뿐 아니라 또 다른 도덕적 정서로서 공감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는 도덕적 이탈이 친사회적 행동을 낮추게 되는 것은 피해아의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Bandura et al., 1996)에 근거하여 도덕적 이탈을 통한 인지적 왜곡으로 인해 피해아의 고통에 초점을 두기 어려움을 가정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도덕적 인지가 도덕적 정서에 선행한다는 입장에 따라 도덕적 이탈이 피해아의 고통에 대한 공감 및 가해행동 후에 느끼게 될 죄책감의 활성화를 방해할 것으로 본다. 게다가 도덕적 이탈은 낮은 공감 및 죄책감을 수반함으로써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가해동조행동에 더욱 개입하는 경로를 설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도덕적 이탈이 가해동조행동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아울러 이 둘의 관계에서 도덕적 정서로서 공감 및 죄책감을 매개한 간접적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또래괴롭힘을 유지시키는 데 적극적 강화효과를 갖는 가해동조행동의 감소를 통한 또래괴롭힘 중재 전략 마련에 보다 효율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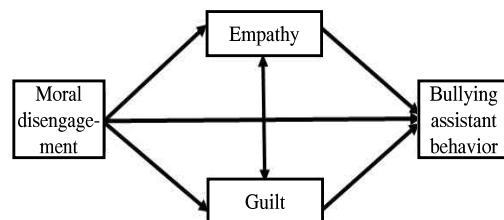
<연구문제 1> 도덕적 이탈, 공감, 죄책감 및 또래괴롭힘에 대한 가해동조행동 간의 상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도덕적 이탈, 공감 및 죄책감은 또래괴롭힘에 대한 가해동조행동에 어떠한 직,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Figure 1에 나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또래괴롭힘에 대한 가해동조행동에 도덕적 이탈과 공감 및 죄책감 요인이 개입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선행 연구들을 통해 도덕적 인지가 도덕적 정서를 매개하여 가해동조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예측하였다. 즉 도덕적 이탈을 독립변인으로, 도덕적 정서인 공감 및 죄책감을 매개변인으로, 그리고 가해동조행동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으며 도덕적 이탈은 가해동조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공감 및 죄책감 통한 간접적인 영향도 미칠 것으로 가정된다.

연구문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공감과 죄책감은 경험적으로 관련성이 보고되었으며(Song, 2010; Tangney & Dearing, 2002), 공분산을 허용하더라도 간명성에 크게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모형의 적합도를 고려하여 공감과 죄책감 간의 상호관련성을 추가로 설정하여 모형을 검증하기로 하였다.



<Figure 1> Diagram of paths in mediation models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아동 후기부터 초기 청소년기에 또래괴롭힘이 더욱 빈번해지는 점을 감안하여 또래괴롭힘의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Cha, 2005; Seo, 2006).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4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남, 여학생을 표집하여 학급단위의 설문조사방법으로 477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이 가운데 설문에 성실한 응답을 하지 않았거나 본 연구에 사용된 하나의 척도에 모든 문항을 응답하지 않아 척도별 점수가 산출되지 않은 35명을 제외한 총 442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은 각각 227명(51.4%)과 215명(48.6%)이었다.

2. 연구도구

1) 가해동조행동

또래괴롭힘에 대한 가해동조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Salmivalli 외(1996)에 의해 고안된 ‘참여자 역할 질문지(Participant Role Questionnaire : PRQ)’를 기초로 타당도 검증을 마친 Seo(2008)가 재구성한 척도 중 가해 동조자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 척도(Salmivalli et al., 1996)는 가해행동을 지지하거나 부추기는 역할을 조력자와 강화자로 구성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조력자와 강화자는 모두 가해행동을 적극적으로 강화한다는 개념적 측면과 조력자와 강화자가 하나의 요인으로 분류된 경험적 결과(Seo, 2008)에 따라 이 둘을 포괄하여 가해동조행동으로 측정하였다. 문항들은 ‘어떤 아이가 누군가를 괴롭히

기 시작하면 나도 괴롭히는데 동참한다’, ‘괴롭힘 상황을 구경하라고 다른 아이들을 부른다’ 등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가해아를 지지하고 가해행동에 동참하는 행동들을 측정하는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까지 5점의 응답범주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가해동조행동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값은 .83으로 나타났다.

2) 도덕적 이탈

도덕적 이탈을 측정하기 위해 Bandura 외(1996)가 제작한 ‘도덕적 이탈 기제(mechanisms of moral disengagement)’ 척도를 번안한 후 한국 아동에게 적합하지 않은 한 문항을 제외하고 사용하였다. 즉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가끔씩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는 한국의 초등학교 6학년 아동에게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는 내용으로 판단하여 삭제시켰다. 원 척도는 도덕적 정당화(예 :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싸움하는 것은 괜찮다), 완곡한 언어(예 : 다른 아이를 밀치거나 떠미는 것은 일종의 장난이다), 상대적 비교(예 : 다른 아이를 때리는 것에 비하면 깔보며 욕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책임전가(예 : 주위 친구를 따라 해서 나쁜 말을 쓰는 아이를 비난할 수 없다), 책임분산(예 : 집단이 한 나쁜 행동에 대해 한 아이에게만 책임지우는 것은 불공평하다), 결과왜곡(예 : 아이들끼리 깔보고 욕하는 것은 상처가 되지는 않는다), 비인간화(예 :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인간 대접을 받을 가치가 없다), 비난의 귀인(예 : 또래들에게 괴롭힘 당하는 아이는 대개 그럴만한 행동을 한다) 등 8개 요인별 4문항씩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31문항을 총합하여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의 응답범주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도덕적 이탈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값은 .86으로 나타났다.

3) 공감

본 연구에서는 공감을 다른 사람에 대한 동정이나 관심의 감정을 경험하는 경향으로 정서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측정하였다(Davis, 1994). 즉 공감은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피해아의 고통을 공유함으로써 피해아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Bryant(1982)의 공감 척도를 또래괴롭힘 상황에 맞게 Seo(2006)가 수정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내용은 ‘친구들에게 발로 차이거나 맞는 아이를 보면 마음이 아프다’, ‘아무도 놀아주지 않는 아이를 보면 가엾다는 생각이 든다’ 등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의 응답범주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피해아의 고통을 공감하는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값은 .94로 나타났다.

4) 죄책감

죄책감은 나쁜 행동에 대한 긴장, 양심의 가책이나 후회의 감정과 관련된 것으로(Lewis, 1971), 본 연구에서 죄책감은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가해아 역할의 행동을 했을 때 느끼게 될 양심의 가책이나 후회를 의미한다. 죄책감을 측정하기 위해 Kim과 Ha(2000)가 제작한 청소년의 죄책감 척도 가운데 타인 괴롭히기 영역의 문항들(예 : 친구의 약점을 다른 친구에게

일러주었다면...)을 참고하여 또래괴롭힘 상황에 맞게 연구자가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내용은 신체, 언어 및 관계적 형태의 가해행동을 했을 때 죄책감을 얼마나 느끼는지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예를 들면, ‘내가 만약 어떤 아이의 신체나 외모와 관련하여 놀렸다면...’, ‘내가 만약 다른 친구들에게 어떤 아이와 놀지 말라고 말했다면...’ 등의 문항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다(1점)’, ‘가끔 후회하거나 죄의식을 느낄 것이다(2점)’, ‘항상 후회하거나 죄의식을 느낄 것이다(3점)’ 중 하나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총 8문항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해행동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느끼게 될 죄책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값은 .92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먼저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 내적 합치도 점수인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그 다음으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변인들의 기술통계치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변인들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도덕적 이탈, 공감 및 죄책감이 가해동조행동에 미치는 직, 간접적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들이 다변량 정규분포라는 가정으로부터 자유롭고 추정치의 편향 및 표준오차, 모수의 신뢰구간을 제공해주는 부트스트랩 방법을 사용하였다(Shrout & Bolger, 2002). AMOS 20.0 프로그램이 사용된 경로분석 외 모든 분석에는 SPSS 21.0이 활용되었다.

III. 결과분석

1. 변인들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의 기술통계치가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도덕적 이탈의 평균값은 2.09이고, 공감의 평균은 3.63으로 나타나 초등학교 6학년 아동들은 또래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친구들의 고통을 공유하며 걱정하는 정도가 비교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3점 평정 척도로 측정된 죄책감의 평균은 2.25이며, 또래괴롭힘에 대한 가해동조행동의 평균은 1.66이었다. 측정변인의 정규성 가정을 살펴보기 위해 각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를 산출한 결과, 왜도는 -.60에서 1.01로 나타났으며 첨도는 -.25에서 1.49 사이에 있어 다변량 정규성 가정(왜도 < 2, 첨도 < 4)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인다(Hong, Malik, & Lee, 2003).

2. 도덕적 이탈, 공감, 죄책감 및 가해동조행동 간의 상관관계

연구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변인들은 -.39에서 .54 사이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도덕적 이탈 수준이 높을수록($r = .40, p < .001$), 공감($r = -.39, p < .001$) 및 죄책감($r = -.34, p < .001$) 수준이 낮을수록 가해동조행동에 더 많이 개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도덕적 이탈은 공감($r = -.14, p < .01$) 및 죄책감($r = -.15, p < .001$)과 각각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여주고 있어, 도덕적으로 이탈될수록 공감이나 죄책감의 정서는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적 정서인 공감과 죄책감의 상관은 .54($p < .001$)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피해아의 고통을 더욱 염려하며 걱정하는 아동들이 가해행동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느끼는 양심의 가책이

<Table 1> Means, standard deviations, skewness, and kurtosis of variables (N = 442)

Variable	Mean	Std. Deviation	Skewness	Kurtosis
Moral disengagement	2.09	.49	-.03	-.25
Empathy	3.63	1.07	-.60	-.21
Guilt	2.25	.48	-.18	-.22
Bullying assistant behavior	1.66	.62	1.01	1.49

<Table 2>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 = 442)

	Moral disengagement	Empathy	Guilt	Bullying assistant behavior
Moral disengagement	1			
Empathy	-.14 **	1		
Guilt	-.15 ***	.54***	1	
Bullying assistant behavior	.40 ***	-.39***	-.34***	1

** $p < .01$. *** $p < .001$.

나 후회 또한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경로모형을 검증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고 여겨진다.

3. 가해동조행동에 대한 도덕적 이탈 및 도덕적 정서의 직·간접적 영향

도덕적 이탈, 공감 및 죄책감이 또래괴롭힘에 대한 가해동조행동에 어떠한 직,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Table 3과 Figure 2에 나타나 있다. 개별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도덕적 이탈은 공감($\beta = -.14, p < .01$) 및 죄책감($\beta = -.15, p < .001$)에 각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해동조행동에 대한 공감($\beta = -.26, p < .001$) 및 죄책감($\beta = -.16, p < .001$)

의 영향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도덕적 이탈은 가해동조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었다($\beta = .34, p < .001$). 즉 도덕적 이탈은 가해동조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높은 도덕적 이탈이 공감 및 죄책감 수준을 낮추게 되고, 이는 다시 가해동조행동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도덕적 이탈, 공감 및 죄책감이 가해동조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의 인과효과를 분석한 결과가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가해동조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도덕적 이탈($\beta = .40, p < .001$)이며, 그 다음으로 공감($\beta = -.26, p < .001$)과 죄책감($\beta = -.16, p < .001$)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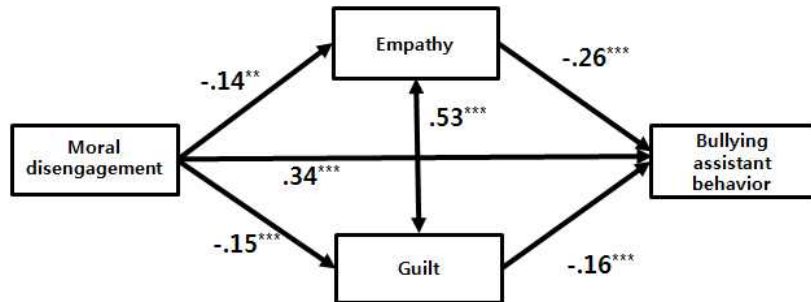
가해동조행동에 대한 도덕적 이탈의 간접효과가 유의미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Table 3> Path estimates of variables

(N = 442)

Path of variables	B	β	SE B	C.R
Moral disengagement → Empathy	-.31	-.14	.10	-3.04**
Moral disengagement → Guilt	-.15	-.15	.05	-3.23***
Empathy → Bullying assistant behavior	-.15	-.26	.03	-5.32***
Guilt → Bullying assistant behavior	-.20	-.16	.06	-3.23***
Moral disengagement → Bullying assistant behavior	.43	.34	.05	8.21***

** $p < .01$. *** $p < .001$.



<Figure 2> Path of influences on bullying assistant behavior

<Table 4>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of the paths for the model (N = 442)

Path of variables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Bootstrapping 95% CI
Moral disengagement → Empathy	-.14**	-	-.14**	
Moral disengagement → Guilt	-.15***	-	-.15***	
Empathy → Bullying assistant behavior	-.26***	-	-.26***	
Guilt → Bullying assistant behavior	-.16***	-	-.16***	
Moral disengagement → Bullying assistant behavior	.34***	.06***	.40***	(.022, .104)

** $p < .01$. *** $p < .001$.

을 1,000번 반복 시행하여 분석하였다(Efron & Tibshirani, 1985). 도덕적 이탈의 간접효과 크기가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공감 및 죄책감의 매개를 통한 간접효과가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다(Shrout & Bolger, 2002). 즉 도덕적 이탈이 가해동조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도덕적 정서인 공감 및 죄책감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또래괴롭힘을 가해아 및 피해아 중심의 개인적 현상으로 보는 기존의 관점을 확장하여 또래의 반응을 통해 가해행동이 지속되는 집단과정으로 접근하였다. 특히 가해행동을 지속시키는 데 적극적 강화 역할을 하는 가해동조행동에 주목하였고, 이와 관련되는 도덕적 인지 및 도덕적 정서 요인의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가해행동의 지속을 끊을 수 있는 중재 전략에 효율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도덕적 인지 요인으로서 도덕적 이탈이 가해동조행동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뿐 아니라 도덕적 정서인

공감 및 죄책감을 통한 간접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적 이탈은 가해동조행동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이 나타난 반면, 공감 및 죄책감은 모두 가해동조행동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도덕적 이탈이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가해동조행동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또래괴롭힘 참여자 역할 간 도덕적 이탈 수준을 비교한 선행 연구들(Baik, 2010; Gini, 2006; Seo, 2006)과 일관된다. 즉 이들 연구에서는 또래괴롭힘에 참여하는 방관자나 피해아 방어자 집단에 비해 가해 동조자의 도덕적 이탈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외현적 형태뿐 아니라 관계적 형태의 가해동조행동에 도덕적 이탈이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한 Bae(2012)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인지적 재구성을 통해 도덕적 자기제재가 이탈되는 것은 나쁜 행동에 대한 자기억제를 약화시키므로 또래괴롭힘 상황에 적용해 볼 때 또래들이 피해아를 도울 필요성이나 가해행동에 대해 제재할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게 함으로써 가해아의 행동에 쉽게 동조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공감 수준이 낮은 아동이 가해동조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선행 연구들(Gini et al., 2007; Maeda, 2003; Seo, 2006)과 일관된 것으로, 가해아를 부추기거나 지지하는 행동에 덜 관여하는 데에는 피해아가 경험하는 고통의 정서를 공유하는 능력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인식시킨 결과이다. Kim(2002)의 연구에서도 피해아의 고통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공감능력이 가해아 지지를 억제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가해행동을 했다고 가정할 때 느끼는 죄책감 수준이 높을수록 가해동조행동 수준이 낮게 나타난 것은 죄책감과 공격성 및 규칙위반행동과 같은 일탈행동과 부적 관련성을 제시한 연구결과들(Ha, 2001; Han, 2007)이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는 가해아처럼 주도적으로 가해행동에 먼저 연루되진 않더라도 가해아의 행동에 동조하는 것을 억제시키는 데에도 나쁜 행동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나 후회의 감정이 선행될 필요성을 인식시킬 근거를 마련한 결과이다. 또한 더 높은 수준의 죄책감을 보고하는 아동 및 청소년들은 부정적인 행동을 수정하려는 시도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으며(Tangney, 1995), 덜 공격적이며 부정적 행동을 실행으로 옮기지 않는 경향과도 같은 맥락이다(Quiless & Bybee, 1997).

둘째, 가해동조행동을 예측하는 변인들의 총 인과효과에서 나타났듯이, 또래괴롭힘에 대한 가해동조행동을 실행하는 데는 도덕적 이탈이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가해동조행동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도덕적 인지와 도덕적 정서를 함께 고려했을 때 공감 및 죄책감과 같은 도덕적 정서보다는 도덕적 이탈이 가해동조행동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가해동조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도덕적 정서 중 죄책감보다 공감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선행연구들(Song, 2010; Tangney & Dearing, 2002; Tangney & Fischer, 1995)과 일관되게 본 연구에서도 도덕적 정서로서 공감과 죄책감은 높은 상관을 보여주지만, 각각을 통제했을 경우 가해동조행동에 대한 공감의 영향력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둔 정서적 측면의 공감은 공감의 대상과 관찰자 간의 공유된 감정으로 서(Freshbach, 1975), 다른 사람의 정서적 경험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죄책감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부정적 평가의 대상이 자신이 한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다(Menesini et al., 2003). 이처럼 공감 및 죄책감의 정서는 각각이 강조하는 측면이 다르기 때문에 가해동조행동에 대한 영향력에서 차이가 난 것으로 여겨진다. 즉 가해동조행동은 가해행동 자체에 초점을 두고 그 행동으로 인해 피해아에게 잘못했다는 인식으로부터 야기되는 죄책감의 결핍보다는 또래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피해아에게 주목하여 그들의 고통을 공유하는 공감능력의 부족에 더욱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도덕적 이탈이 또래괴롭힘에 대한 가해동조행동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뿐 아니라 공감 및 죄책감을 통한 간접적 영향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덕적 이탈이 공감 및 죄책감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가해동조행동으로 연결되는 경로가 검증되어 도덕적 이탈과 가해동조행동의 관계에서 공감 및 죄책감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도덕적 이탈이 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난 결과는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 둘의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다고 보고한 Song(2010)의 연구결과와는 비일관적이다. 하지만 높은 도덕적 이탈자들은 또래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피해아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괴롭힘의 원인을 오히려 피해아 잘못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피해아에 대한 공감 능력을 발달시키기 어렵다고 본다.

도덕적 이탈 수준이 높을수록 가해행동을 했다고 가정할 때 느끼는 죄책감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도덕적 이탈을 통해 사람들이 비인간적 행동이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해 가치있는 목적을 부여하는 것으로 재해석하게 되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 고칠 필요성을 느끼거나 죄책감으로 고통받을 이유가 전혀 없게 된다(Bandura et al., 1996). 즉 가해행동에 대해 예상되는 죄책감을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데 도덕적 이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도덕적으로 이탈된 아동들은 도덕적 자기제재를 약화시키게 되며 이는 피해아에 대한 고통을 공유하지 못하거나 해로운 행동에 일치하여 예상되는 죄책감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가해아의 행동에 더욱 쉽게 동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비도덕적 행동에 대한 인지적 재구성은 도덕적 정서를 매개하여 행동으로 전환되는 기제(Bandura et al., 1996)를 밝히는 경험적 지지를 더해준 것이다.

본 연구는 행동주의 접근의 강화 원리를 적용하여 가해동조행동을 통한 적극적 강화가 또래괴롭힘을 지속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 점에서 이론적 의의를 가진다. 게다가 도덕적 이탈과 공감 및 죄책감이 가해동조행동에 미치는 직, 간접적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또래

괴롭힘의 지속을 차단시키는 전략에 초점을 두어야 할 도덕적 인지 및 정서 요인을 확인한 점에서 실천적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또래괴롭힘 중재를 실천하는 상담 및 학교 현장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첫째, 가해행동을 지속시키는 데 강화자 역할을 하는 가해동조행동은 가해행동만큼 수용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내용의 교육이 학급 단위로 전체 아동들에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교사들이 학급에서 일어나는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가해아 또는 피해아 중심의 위기 개입을 넘어 이들 주변에 있는 또래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도 수시로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정당화, 행동의 해로운 결과 왜곡, 그리고 피해아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도덕적 이탈을 감소시키기 위해 인지적 왜곡에 대한 교정에 초점을 둔 교육이 학교에서 관련 교과와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하겠다. 셋째, 도덕적 정서는 도덕적 이탈과 가해동조행동 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므로 공감 훈련이나 죄책감을 높이는 중재가 가해동조행동 감소에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공감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또래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아의 고통을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문학이나 영화를 활용하거나 역할놀이 또는 집단토의 등을 통한 학급 활동이 활용될 수 있다. 죄책감은 나쁜 행동에 대한 도덕적 책임의 동기로 작용하므로(Menesini et al., 2003), 또래괴롭힘에 대한 도덕적 책임 동기 수준을 높이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예를 들어, 도덕적 가치의 발전적 내면화에 대한 피아제와 콜버그의 이론을 적용시키면(Menesini et al., 2003),

가해행동에 대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 자기중심적 책임 동기보다는 가해행동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 인습적 수준에서 또는 피해아가 경험할 고통을 생각하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감 차원에서 책임 동기를 갖도록 하는 내용이 중재 전략에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도덕적 이탈과 가해동조행동 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 도덕적 정서 가운데 공감과 죄책감에만 초점을 두었는데, 수치심과 같은 도덕적 정서 등이 후속 연구에서 고려된다면 다양한 도덕적 정서 요인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해행동의 외현적, 관계적 형태별로 또래들의 반응이 다양함(Tapper & Boulton, 2005)을 인식하면서 추후 연구에서는 가해동조행동에 있어서도 외현적, 관계적 유형별로 측정하여 (Bae, 2012) 도덕적 이탈 및 도덕적 정서와의 관련성을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References

- Albiero, P., & Lo Coco, A. (2001). Designing a method to assess empathy in Italian children. In A. Bohart & D. Stipek (Eds.), *Constructive and Destructive Behavior. Implications for Family, School & Society* (pp. 205-223).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andura, A. (1991). Social cognitive theory of moral thought and action. In W. M. Kurtines & J. L. Gewirtz (Eds.), *Handbook of moral behavior & development :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Vol. 1. pp. 45-103). Hillsdale, NJ : Erlbaum.
- Bandura, A., Barbaranelli, C., Caprara, G. V., & Pastorelli, C. (1996). Mechanism of moral disengagement in the exercise of moral ag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2), 364-374.
- Bae, J. H. (2012).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anxiet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adolescents' moral disengagement and the bullying assistant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 Baik, J. H. (2010). Understandings peer victimization in boys and girls : Adolescent's cognitive, emotional, social characteristics and bullying participant ro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Bryant, B. K. (1982). An index of empath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3*(2), 413-425.
- Cha, Y. H. (2005). Participant roles in peer bullying and social understandings among grade school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Craig, W. M., & Pepler, D. J. (1998). Observations of bullying and victimization in the school yard. *Canadi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13*(2), 41-59.
- Davis, M. H. (1994). *Empathy,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USA : Wm. C. Brown Communications, Inc.
- Efron, B., & Tibshirani, R. (1985). The bootstrap method for assessing statistical accuracy. *Behaviormetrika, 17*, 1-35.
- Eisenberg, N. (2000). Emotion, regulation and moral development. *Annual review Psychology, 51*, 119-150.

- 51(1), 665-697.
- Eisenberg, N., & Strayer, J. (1987). *Empathy and its development*.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reshbach, N. D. (1975). Empathy in children : Some theoretical and empirical considerations. *Counselling Psychologist, 5*(2), 25-30.
- Gini, G. (2006). Social cognition and moral cognition in bullying : What's wrong? *Aggressive Behavior, 32*(6), 528-539.
- Gini, G., Albiero, P., Benelli, B., & Altoè, G. (2007). Does empathy predict adolescents' bullying and defending behavior? *Aggressive Behavior, 33*(5), 467-476.
- Ha, Y. H. (2001). A study on the correlates to adolescents' moral behavior - Focused on the prescriptive behavior and proscriptive behavior -.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 Han, S. Y. (2007). Moral emotion and aggression among early adolescence -Focusing on guilt, shame, and empathy-.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5*(7), 17-33.
- Hoffman, M. L. (1983). Affective and cognitive processes in moral internalization. In E. T. Higgins, D. N. Ruble, & W. W. Hartup (Eds.), *Social cognition and social development : A sociocultural perspective* (pp. 236-274). Cambridge, U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ffman, M. L. (2001). Toward a comprehensive empathy-based theory of prosocial moral development. In A. Bohart & D. Stipek (Eds.), *Constructive & destructive behavior : Implications for family, school, & Society* (pp. 61-86).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ong, S., Malik, M. L., & Lee, M. 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a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4), 636-654.
- Kang, Y. K. (2007). Wanta as a group process : Relation between wangta participant role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 aggressive behavior, social competence and empath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Karatzias, A., Power, K. G., & Swanson, V. (2002). Bullying and victimization in Scottish secondary schools : Same or separate entities? *Aggressive Behavior, 28*(1), 45-61.
- Kaukiainen, A., Björkqvist, K., Lagerspetz, K., Österman, K., Salmivalli, C., Rothberg, S., & Ahlbom, A. (1999). The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intelligence, empathy, and three types of aggression. *Aggressive Behavior, 25*(2), 81-89.
- Kim, J. H. (2002). The relations between attachment to parents, adolescent's empathy, and their conflict-resolution strategies to friend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K. Y., & Ha, Y. H. (2000). Relationships between guilty and rule violation act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8*(1), 115-125.
- Kim, M. K. H. (2002). Moral emotion in Korean children and adolescents : A developmental consequence for understanding guilt. *The*

-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5(1), 35-55.
- Lewis, H. M. (1971). *Shame and guilt in neurosis*. New York :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Maeda, R. (2003). Empathy, emotional regulation, and perspective taking as predictors of children's participation in bully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 Mehrabian, A. (1997). Relations among personality scales of aggression, violence, and empathy : Validation evidence bearing on the risk of eruptive violence scale. *Aggressive Behavior*, 23(6), 433-445.
- Menesini, E. Sanchez, V. Fonzi, A. Ortega, R. Costabile, A., & Feudo, G. L. (2003). Moral emotions and bullying : A cross-national comparison of differences between bullies, victims and outsiders. *Aggressive Behavior*, 29(6), 515-530.
- Olweus, D. (1984). Aggression and their victims : Bullying at school. In N. Frude & H. Gault (Eds.). *Disruptive behavior in schools*. New York : John Wiley.
- Olweus, D. (1993). *Bullying at school*. Cambridge, Ma : Blacwell.
- Quiles, Z. N., & Bybee, J. (1997). Chronic and predispositional guilt : Relations to mental health, prosocial behavior, and religios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9(1), 104-126.
- Rigby, K., & Slee, P. T. (1993). Dimensions of interpersonal relation among Australian children and implications for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3(1), 33-42.
- Salmivalli, C., Lagerspetz, K., Björkqvist, K., Österman, K., & Kaukiainen, A. (1996). Bullying as a group process : Participant roles and their relations to social status within the group. *Aggressive Behavior*, 22(1), 1-15.
- Salmivalli, C., & Voeten, M. (2004). Connections between attitudes, group norms, and behavior in bullying situ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 Development*, 28(3), 246-258.
- SEGYE.com (2013. 04. 23). 44% victims of bullying at school "thoughts of suicide".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3/04/22/20130422004915.html>.
- Seo, M. J. (2006). An exploration on mitigative factors of bullying- Focused on analysis by types of outsider -.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 Seo, M. J. (2008). Participation in bullying : Bystanders' characteristics and role behavio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9(5), 79-96.
- Seo, M. J., & Kim, K. Y. (2004). Personality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who are bullies and/or Victim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5(2), 93-188.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im, H. O. (2005). A cross-sectional and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on bullying/victimization and interpersonal behavior characteristics : The participant roles approach.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6(5), 263-279.
- Skinner, B. F. (1953). *Science and Human Behavior*. New York : The MacMillan Company.

- Smith, P. K. (1991). The silent nightmare : Bullying and victimization in school peer groups. *The Psychologist : Bulletin of the British Psychological Society*, 4, 243-248.
- Smith, P., Morita, Y., Junger-Tas, J., Olweus, D., Catalano, R., & Slee, P. (1999). *The nature of school bullying : A cross-national perspective*. London and New York : Routledge.
- Song, K. H. (2010). The relationship among theory of mind, proactive bullying and defending behaviors in adolescents : Mediation effect of moral disengagement and moral emotio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Song, J. A., & Kim, Y. H. (2001). A study on effectiveness of the adolescents' psychological & behavioral adaptation program from school violence(Ⅱ).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3(1), 79-94.
- Sutton, J., Smith, P. K., & Swettenham, J. (1999). Bullying and 'theory of mind' : A critique of the 'social skills deficit' view of anti-social behaviour. *Social Development*, 8(1), 117-127.
- Tangney, J. P. (1995). Recent advances in the empirical study of shame and guilt.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38(8), 1132-1145.
- Tangney, J. P., & Dearing, R. L. (2002). *Shame and guilt*. New York : Guilford Press.
- Tangney, J. P., & Fischer, K. W. (1995). *Self conscious emotions : The psychology of shame, guilt, embarrassment, and pride*. New York : Guilford Press.
- Tapper, K., & Boulton, M. J. (2005). Victim and peer group responses to different forms of aggression among primary school children. *Aggressive Behavior*, 31(3), 238-253.
- Unnever, J. D. (2005). Bullies, aggressive victims, and victims : Are they distinct groups? *Aggressive Behavior*, 31(2), 153-171.

2013년 8월 30일 투고, 2013년 12월 14일 수정
2013년 12월 17일 채택